

“해리스, 가상대결서 우위”...트럼프측 “허니문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1천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앞서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으며 15-16일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동률을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로이터 여론조사...양자 44%대42%·다자 42%대38% 56%가 해리스에 “정신적 예리”...트럼프는 49%에 그쳐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8% 등을 각각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다자 가상대결의 오차범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59)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78)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고령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81)의 경우 22%만 정신적으로 업무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민주당 후보가 80대의 바이든 대

통령보다 20살 이상 어린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80세를 목전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아후뉴스와 유고브가 19일부터 22일까지 1천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지지율이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3자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해리스 부통령(41%)보다 우위에 있었다.

다만 이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

던 21일 이전부터 진행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토니 파브리시오는 이날 캠프가 언론에 공개한 ‘해리스 허니문’ 제목의 내부 문건에서 “주류 언론의 해리스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며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민주당 및 민주당 진영의 일부를 활기차게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서 해리스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뜨거운 감자’ 네타냐후 방미에 반전시위대 美의회서 농성

이스라엘 총리 상·하원 합동 연설 바이든·해리스·트럼프와 화동예정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연방의회 연설을 앞두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가자전쟁) 종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원회관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다 대거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 하루 전날인 이날 오후 수백명의 시위대가 하원의원들의 사무실 건물인 캐넌빌딩 중앙홀을 점거했다. ‘평화를 위한 유대인들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조직한 시위에서 ‘우리는 반대한다’(Not In Our Name) 등의 문구가 적힌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가자 사람들을 살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약 30분간의 박수와 구호가 이어지자 의회 경찰관들은 몇 차례 경고를 거쳐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한 뒤 결박해서 한명씩 연행했다. 또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는 ‘더 이상 네타냐후에게 폭탄을 제공하지 말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붙인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정되거나 공개된 네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현지시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워싱턴 DC에 있는 캐넌빌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후 총리의 방미 일정으로는 2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과 25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면담이 있다. 24-25일 사이에, 재선 포기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자리를 예약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자전쟁의 한 당사자인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에 가자전쟁의 휴전을 끌어냄으로써 내년 1월 자기의 임기 종료 전에 하마스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들의 석방과 중동 긴장 완화 등

의 성과를 내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에 게 휴전을 종용할 전망이다.

그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해결 능력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새로운 중동 평화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힙합 김정은’ 머스크가 올린 AI 영상 1억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린 가상의 패션쇼 영상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머스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까지 40여시간 동안 조회수 1억4천500만회를 기록했고 110만여회의 ‘좋아요’를 받았다.

머스크는 이 영상에 “AI 패션쇼를 위한 최고의 시기”(High time for an AI fashion show)라는 설명을 달았다.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꾸며졌다.

김정은(사진) 위원장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힙합풍의 모자가 달린 긴 티셔츠를 입고 큰 금색 목걸이를 건 모습으로 등장한다. /연합뉴스

올림픽 앞 ‘파리 치안 우려’...외국인 집단 성폭행 당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한 호주 여성이 파리 도심에서 5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올해 55세로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케밥 가게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찢긴 채 가게 주인에

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파리 경찰은 오는 28일 개막해 다음달 12일까지 이어지는 올림픽 기간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